

14

축전지 극판쌓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여	나이	43세	직종	극판쌓기 작업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전○○(여, 43)는 1988년 12월 S전지에 입사하여 축전지 극판쌓기 작업을 한 후 2003년 11월 M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전○○는 29세 때인 1988년 12월 15일부터 S전지에 입사하여, 축전지의 극판을 음극판-격리판-양극판-격리판-음극판 등으로 계속 쌓는 작업을 하였다. 격리판은 고무 혹은 PVC에 유리섬유가 부착된 절연재료,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후드가 설치된 곳에서 쌓는다. 최근 3년 간 전○○를 대상으로 측정한 공기 중 납 노출수준은 0.015~0.104mg/m³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전○○는 흡연력이 없으며, 최근 3년 간 혈액 중 납 농도는 22.0~34.7μg/dl이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1개월 전에 발견된 왼쪽 목의 종괴로 M병원 내과를 방문하여 2003년 11월 10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좌상엽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2003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반외과에 입원하여 왼쪽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경부 림프절로 전이



된 원발성 폐암(Stage IIIb, T2N3M0)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후, 계속 항암 화학요법 중이다.

4 결 론

전○○의 폐암은

-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 ② 약 14년 동안 축전지 극판을 쌓는 작업을 하면서 납과 유리섬유에 노출되었으나,
 - ③ 납과 유리섬유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그 노출수준도 낮았다고 판단되어,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